

지구상에 스티로폴 포장재의 사용 규제는 없어

스티로폴(EPS) 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기업들로부터 해당 수출지역에 스티로폴 포장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관련 국제기구들에 문의한 결과 어느 지역에도 스티로폴 포장재 사용에 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아시아에 스티로폴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아시아EPS생산자기구(AMEPS)는 최근의 소문과 달리 중국 내에 EPS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AMEPS의 회원인 중국 플라스틱 제품 산업 협회 EPS지부(CPPIAEPS)는 중국 내에 EPS 포장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향후 규제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에서는 비난연등급의 단열재가 사용 된 작업장에서 몇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발포성 단열재 가운데 통상 건물 단열재로 사용되는 것은 EPS입니다. 우리는 중국 당국이 비가연성(소위 A등급)을 사용하는 건물의 기준을 상향하고 있으며 건물 단열재로는 난연성 물질(B1등급)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PS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조치는 없으며 비난연의 일반 등급 외에 건물 단열재로 어떠한 발포재질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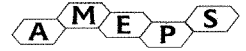
AMEPS는 또한 회원들로부터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도 EPS 포장재 사용 규제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 없음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그와 달리 우리는 '한국에서의 EPS포장재 사용 규제 해제' 라는 희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환경부는 소형가전 완충 포장재 사용에 대한 규제를 2009년 12월 31일 해제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1년 1월 6일 완구·인형 및 종합 제품의 EPS 포장재 사용 규제도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이제 한국에는 EPS포장 사용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아시아에서의 EPS포장재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AMEPS로 연락주시시오.

AMEPS
사무국장
H. S. Shin

'No Ban' on Expanded Polystyrene (EPS) packaging in Asia



Contrary to recent rumor, AMEPS would like to confirm that EPS packaging is not banned in China. Our member from China, CPPIAEPS (China Plastic Products Industry Association - EPS Division) has confirmed there is there no ban on the use of EPS for packaging in China nor is there any plan to do so.

In recent months, there have been a couple of fire incidents at work site in China where non-fire retardant grade foam insulation was used. Among the many foam insulation commonly used for building insulation is EPS. We understand the authority in China is raising building standard whereby only non-combustible (called class A) and fire retardant (class B1) materials can only be used for building insulation. There is no outright ban on the use of EPS or any foam for building insulation except that normal grade which is non-fire retardant is not permitted to be used for such application.

AMEPS would also like to confirm that none of our members has reported of any ban on the use of EPS packaging in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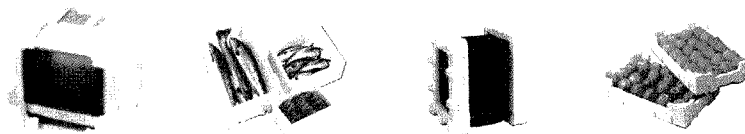
On the contrary we have good news on the lifting of restriction on use of EPS packaging in Korea.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KMEO) has removed the ban on EPS protective packaging on small electric home appliances from 31 December 2009. Further to that, on 6 January 2011, KMEO lifted the regulation on use of EPS packaging for toys, dolls and packages of collected goods. With these changes, there is no more restriction on the use of EPS packaging in Korea.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with AMEPS for more information on EPS packaging in Asia.

Regards,

H. S. Shin
Secretary General
AMEPS

No bans on EPS Packin in the world



북미 스티로폼포장재활용연맹(AFPR)은 미국과 캐나다의 원료업체, 성형업체 및 기계제작업체를 포함한 EPS포장산업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입니다. AFPR은 EPS완충재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사와 연구사업을 제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요 포장관련 대학들과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합중국에는 EPS포장재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규제나 금지도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EPS 재활용은 자발적으로 행해집니다. 미국에서는 환경청(EPA)이 환경에 관련 된 연방 법률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구매'라고 불리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지침은 정부 기관들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제품과 용역을 구매하는데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각 주(州)들은 자체 통치권을 유지하고, 주정부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일부의 주들이 1990년대 초에 포장에 대한 규제적 조치들을 도입할 때도 EPS 운반포장은 규제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몇몇 도시들은 폴리스티렌 식품포장용기에 대한 지역적 규제가 있으며 60%의 재활용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주정부 차원에서 식품포장용 스티로폼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현행 법안(SB568)이 있습니다.

AFPR은 소비자들과 업계에 다량발생원에 대한 재활용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접속 할 수 있는 전국적 우편화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AFPR은 2010년 28%의 재활용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FPR은 EPS생산과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Alliance of Foam Packaging Recyclers (AFPR) is a trade organization representing the expanded polystyrene packaging industry, including raw material suppliers, molders and equipment suppliers in both the U.S. and Canada. AFPR maintains active relationships with major packaging universities to identify and monitor research projects that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expanded polystyrene (EPS) foam cushioning properties and performance.



There are no legislative restrictions or bans on EPS transport packaging in the United States or Canada. All EPS recycling in North America is performed on a voluntary basis. In the U.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oversees national legislation effecting the environment. The EPA produces guidelines called Environmentally Preferable Purchasing, which provide information for government agencies on the purchasing of environmentally preferable products and services. Further, each state maintains its own governance and can pass laws, and while some states did introduce restrictive measures on packaging in the early 1990's, expanded polystyrene transport packaging was never targeted or affected in any way. Several California cities have enacted local bans on polystyrene foodservice and there is a current bill (SB 568) that proposes to restrict foodservice foam on the state level unless it achieves a 60% recycling rate. Again, these legislative developments do not affect EPS transport packaging.

AFPR provides consumers and businesses with information on recycling for larger volume sources and operates a nationwide mail-back program that is accessible by consumers. Through the support of its members, AFPR has achieved an average recycling rate of twenty eight percent in 2010. In addition, AFPR plays an active role in the technical advancement and research of EPS production and recycling.

Sincerely,
ALLIANCE OF FOAM PACKAGING RECYCLERS

베시 스타이너
AFPR 전부이사

Betsy Steiner
Executive Director

EU내에 EPS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EPS는 유럽 내에서 상품보호와 단열 포장을 위한 탁월한 선택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PS 포장재의 사용이나 유럽으로의 수입을 규제하는 어떠한 EU의 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규제 움직임은 EU단일 시장법이나 EU 포장지침 모두의 정신에 상반되는 것입니다.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에 관한 EU지침(2004/12/EC 개정지침 94/62/EC)은 포장 표준법과 EU전체에서 포장재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포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국가적 조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사용된 소재에 상관없이 산업용, 상업용, 사무용, 상업용, 공공사업용, 가정용으로, 또는 어떤 다른 단계에서 사용되었거나 버려진, EU역내의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포장재와 모든 포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EU포장지침의 '단일시장' 항목은 EU내의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포장재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필수요구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필수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 포장재는 포장상품과 소비자들의 안전, 위생 및 사용을 위한 최소의 소재가 되어야한다.
- 포장재에 있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은 소각이나 매립 시 배출물이나 소각재 또는 침출액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 포장재는 물질재활용, 에너지 회수로의 소각, 비료화 또는 생분해 중 최소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포장재는 재사용 될 수도 있다.
- 중금속 한도는 카드뮴, 수은, 납과 6가 크롬에 대해 적용한다. 총량은 2001년 6월 30일 이후부터 100ppm을 초과해서 안 된다.

필수요구사항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유럽표준단체(CEN)에 의해 "조화로운" 표준이 개발되었습니다. CEN의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그 표준들이 필수요구사항 준수를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PS가 이 모든 필수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 EPS는 본래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며 어떠한 중금속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EPS포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EUMEPS Packaging에 연락해 주십시오.

EUMEPS Packaging
Tel: +44 20 7457 5043
Fax: +44 20 7457 5045
www.eumeps.org

Is expanded polystyrene (EPS) packaging restricted in the European Union?



No, not at all.

EPS is widely accepted in Europe as an excellent choice for protection and insulating packaging. There is no EU legislation restricting the use of expanded polystyrene packaging or imports into Europe. Such a move would go against the spirit of both the EU Single Market and the EU Packaging Directive.

The EU Directive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2004/12/EC amending Directive 94/62/EC) harmonises both Standards for packaging and national measures on the management of packaging waste to ensure free movement of packaging and goods throughout the EU. It covers all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in the Community and all packaging waste, whether it is used or released at industrial, commercial, office, shop, service, household or any other level, regardless of the material used.

The "Single Market" element of the EU Packaging Directive refers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which all packaging placed on the market in the EU must meet.

The Essential Requirements are:

- Packaging must be minimal subject to safety, hygiene and acceptance for the packed product and the consumer
- Noxious or hazardous substances in packaging must be minimised in emissions, ash or leachate from incineration or landfill
- Packaging must be recoverable through at least one of: Material recycling, Incineration with energy recovery, Composting or biodegradation. Packaging may be reusable
- Heavy metal limits apply to cadmium, mercury, lead and hexavalent chromium. The total should not exceed: 100 ppm on or after 30 June 2001

"Harmonised"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by CEN, the European standards body, to support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It is not mandatory to use the CEN standards but they are one way to demonstrate compliance. There is no reason why EPS should not meet all the Essential Requirements - it is inherently recyclable and contains no heavy metals. For more information on EPS packaging, contact EUMEPS Packaging

EUMEPS Packaging
Tel: +44 20 7457 5043
Fax: +44 20 7457 5045
www.eumeps.org